

초급 레벨에서 습득하기 어려운 일본어 문법항목

—SPOT를 이용하여—

최진희*

(e-mail : pumpkin98@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일본어 문법항목의 습득현황 |
| 2. 선행연구 | 4.1. SPOT(B.ver)의 문법항목의 습득현황 |
| 2.1. SPOT 소개 | 4.2. SPOT(A.ver)의 문법항목의 습득현황 |
| 2.2. SPOT 검증에 관한 연구 | 5. 나가기 |
| 3. SPOT 분석 | |
| 3.1. SPOT(B.ver)의 레벨 분석 | |
| 3.2. SPOT(A.ver)의 레벨 분석 | |

키워드 : 스포트(SPOT), 文法(Grammar), 習得(acquisition), 難易度(A degree of difficulty), 初級(beginning level)

1. 들어가기

문법항목의 습득에는 형태를 만드는 능력과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 2가지 측면이 있고 형태를 만드는 쪽이 쉽고, 그것을 사용하는 쪽이 어렵다고 한다(野田, 2001). 한국 대학의 경우, 일본어 수업은 전공의 경우 레벨이 아니라 학년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 클래스에서 레벨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1급 취득자와 히라가나만 겨우 알고 있는 학습자가 속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히 일본어 학습자의 레벨을 파악한 후 수업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양 수업에 있어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강자로 구성되기 때문

* 백석문화대학, 부교수, 일본어학·교육학

에 레벨 테스트는 필수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 회화 테스트를 실시하여 레벨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레벨 테스트로 자주 이용되는 SPOT에 주목한다. 초급 레벨을 대상으로 SPOT를 실시하여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항목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SPOT 소개

SPOT(Simple Performance-Oriented Test)는 자연스러운 속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용지에 쓰여 있는 각 문제의 1곳, 히라가나 1글자의 공란을 채우는 받아쓰기 일본어 시험으로 언어의 자동처리능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있는 것이다(小林他, 1992)¹⁾. 다시 말해서 자연 발화 속도로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운영능력을 반영한 테스트로 볼 수 있다. 또한 SPOT는 들으면서 읽으면서 즉시 쓰는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것으로 발화 능력 뿐만 아니라 4기능을 다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테스트로 듣기 테스트로 오해하기 쉽지만 일본어 운용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SPOT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일본어로 지시문이 나와 있으며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일본어 학습자의 모어로 설명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다.

<p>テープを聞いて () にひらがな1字を書きなさい。</p> <p>はじめに練習が10あります。テープで「練習」と日本語で聞いて、まず練習をしてみてください。</p> <p>(1)どうぞよろ () く。</p> <p>(2)ここは静 () ですね。</p> <p>(3)おはよう () ございます。</p>

SPOT에는 A, B 두 버전이 있다. SPOT(A.ver)는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성이 문항을 녹음하였다. SPOT(B.ver)는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이 문항을 녹음하였다. SPOT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SPOT는 쓰쿠바 대학의 小林・フォード(1992)의 연구를 시작으로 과학연구비 보조를 얻어 여러 명의 연구자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신뢰성, 타당성이 검증된 테스트로 최근 SPOT-WEB판도 개발되었다.

- 1) 한 문장마다 독립되어 있어 서로 의미적인 관련이 없다.
- 2) 각 문제는 2초 간격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며 음성 테이프 종료와 함께 테스트도 종료하기 때문에 되돌릴 여유가 없다. (스피드 테스트)
- 3) 문은 자연스러운 속도 스타일로 누락이나 노이즈 없이 1문장을 전부 읽는 방식이다.
- 4) 공란은 의도적으로 선택한 문법 항목 부분의 히라가나 1글자이다.
- 5) 1번만 읽어 주며, 반복은 없다.
- 6) 읽어 주기가 전부 끝난 시점에서 바로 테스트를 종료시킨다. 고치기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7) 테스트 실시의 코스트 퍼포먼스가 좋다.(테스트 실시 시간은 문제용지의 배포 및 회수까지 60문제에 10분 정도 걸린다. 또한, 히라가나 1글자 채점이기 때문에 채점이 간단하다.)

(小林2005:69)

小林(2005)는 SPOT는 문법을 알고 있으면 청취 가능하지만, 알고 있지 않으면 청취할 수 없다는 인지적 측면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용 테스트라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SPOT는 짧은 시간 내에 실시할 수 있어 간단하면서도 일본어 운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2. SPOT 검증에 관한 연구

小林(2005)는 문제의 랜덤 배치나 수험 데이터의 자동적 축적에 의해 문제항목 분석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점, 컴퓨터 테스트와 필기 테스트 형식과의 비교를 통해 수험자의 해답 행동 분석까지 가능한 점이 일본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SPOT 용지판과 WEB판에 대해 일본어 학습자에게 조사한 결과, 용지판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점수도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상급 레벨의 학습자 10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대상자에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楊他(2012)는 SPOT의 해답 방법을 기입하는 방식에서 사지선다형으로 변경하여 난이도 컨트롤이 유효한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SPOT 항목 중 난이도가 낮은 경우는 선택지가 정답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난이도가 높은 경우는 선택지가 정답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였다. 선택지의 조정으로 문법항목의 난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3. SPOT 분석

SPOT(A.ver)과 SPOT(B.ver)의 레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어 문장 난이도 판별 시스템 BETA판과 Chuta의 레벨 체커(level checker)를 이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BETA판은 입력된 문을 형태소 분석하여, 문의 평균길이, 동사나 조사의 분포율을 문장 단위로 계산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Chuta의 레벨 체커는 구 일본어능력시험 출제 기준의 어휘 레벨, 한 문장 내의 평균 문자 수를 분석하고 있다.

3.1. SPOT(B.ver)의 레벨 분석

SPOT(B.ver)는 일본어 문장 난이도 판별 시스템 BETA판 분석에 의하면 전체 문장 난이도는 초급후반으로 판정된다²⁾. 리더빌리티 스코어(readability score)는 4.89로 ‘쉽다’로 나왔다.

〈표1〉 SPOT(B.ver)의 BETA판 분석 결과

텍스트의 개요	어휘의 구성	품사구성
1.문장난이도 초급후반 ³⁾ <u>쉽다</u>	초급전반 138	조사 187
2.리더빌리티 스코어 <u>4.89</u>	초급후반 65	조동사 107
3.총 문장수 60	중급전반 35	형식명사 103
4.총 형태소 681	중급후반 10	동사 42
5.총 개별형태소 223	상급전반 2	형용사 17 부사 15
6.총 문자수(기호,공백포함) 1149		고유명사 14
7.한 문장 당 평균어수 11.35		대명사 13
		형상사(形狀詞) 7
		연체사 4

텍스트의 어종 구성은 와고(순수일본어)는 505개, 한자어는 53개, 외래어 10개, 혼종어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 종류의 구성으로는 히라가나는 746개, 한자 213개, 가타

2) 판정은 일본어 학습자의 난이도로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리더빌리티 스코어가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쉬운 텍스트로 판단한다. 레벨과 리더빌리티 수치는 상급후반(매우 어렵다/0.5-1.4), 상급전반(어렵다/1.5-2.4), 중급후반(약간 어렵다/2.5-3.4), 중급전반(보통/3.5-4.4), 초급후반(쉽다/4.5-5.4), 초급전반(매우 쉽다/5.5-6.4)으로 나뉜다.(http://jreadability.net/terms_of_use 검색일: 2020.08.24.)

3) 초급후반은 기본적으로 어휘 문법항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복문을 이해할 수 있는 레벨을 말한다.

가나 29개이다. 어휘 리스트도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개별 형태소 223의 데이터와 빈도 및 레벨이 나와 있다.

SPOT (B.ver)의 내용어와 기능별 레벨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내용어 레벨은 초급전반, 초급후반, 중급전반, 중급후반, 상급전반으로 나뉘고, 기능어 레벨은 초급, 초·중급, 중급으로 나뉘어 있다.

<표2> SPOT (B.ver)의 내용어/기능어별 레벨 분석 결과의 예

1. 東京行きのバスはどれですか。 초/후 초/전
2. <u>この</u> <u>中に</u> <u>何が</u> <u>入</u> ってるんですか。 초/전 초/후 초/전 중/전
3. <u>私の</u> <u>部屋</u> は <u>あまり</u> <u>広く</u> (<u>ない</u> んです)。 초/전 초/전 초/후 초/후 초/전 초/중(기능어)
4. <u>これ</u> 、 <u>きたない</u> んですけど、 <u>もっと</u> <u>きれい</u> (<u>なのは</u>) (<u>ありません</u>)か。 초/전 초/전 초/후 초/전 초/중(기능어) 초급(기능어)
32. 『 <u>経済学入門</u> 』 <u>って</u> いう <u>本</u> 、 (<u>あります</u>)か。 상/전 초/전 초/전 초급(기능어)

또한 Chuta 레벨 체커 분석⁴⁾에 의하면 레벨은 4.9로, N4(초·중급)에 해당한다는 결과였다⁵⁾. SPOT(B.ver)의 텍스트 문장의 평균 길이는 18.1자 정도이다.

<표3> SPOT(B.ver)의 Chuta 레벨 체커의 분석 결과

어휘총수	레벨4	레벨3	레벨2	레벨1	기타	조사,조동사, 접속사
576 (100%)	230 (39.9%)	26 (4.5%)	16 (2.8%)	1 (0.2%)	18 (3.1%)	285 (49.5%)

3.2. SPOT(A.ver)의 레벨 분석

SPOT(A.ver)는 일본어 문장 난이도 판별 시스템 BETA판 분석에 의하면 전체 문장 난이도는 초급후반으로 판정된다. 리더빌리티 스코어는 4.94로 ‘쉽다’로 나왔다. 실제

4) Chuta의 레벨 체커 분석의 경우, 구 일본어능력 시험 기출 문제에 의한 분류 뿐만 아니라, 한 문장의 평균 문장 수 및 문장 레벨 표시, 단어 친밀도에 의한 분류 및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기사에 의한 빈도 정보 등도 파악할 수 있다.

5) Chuta의 레벨 체커는 어휘 레벨, 한 문장의 평균 문자 수, 문장 레벨 등을 분석할 수 있다.(<http://basil.is.konan-u.ac.jp/chuta/level/> 검색일: 2020.08.24.)

로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SPOT(B.ver) 보다 SPOT(A.ver) 쪽이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⁶⁾이 있지만 리더빌리티 스코어 결과상으로는 오히려 SPOT(A.ver) 쪽이 0.5점 더 높고 SPOT(B.ver)과 SPOT(A.ver)의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 SPOT(A.ver)의 BETA판 분석 결과

텍스트의 개요	어휘의 구성	품사구성
1.문장난이도 <u>초급후반 쉽다</u>	초급전반 129	조사 219
2.리더빌리티 스코어 <u>4.94</u>	초급후반 92	조동사119
3.총 문장수 71	중급전반 51	형식명사114
4.총 형태소 828	중급후반 18	동사 54
5.총 개별형태소 291	상급전반 2	대명사 30
6.총문자수(기호,공백포함) 1389		형용사 22
7.한 문장 당 평균어수 11.66		부사 17
		형상사 11
		연체사 10
		고유명사 6
		접속사 1

텍스트의 어종 구성은 와고 601개, 한자어 64개, 외래어 8개, 혼종어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 종류의 구성으로는 히라가나 932개, 한자 206개, 가타가나 27개이다.

SPOT(A.ver)의 내용어와 기능별 레벨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5〉 SPOT(A.ver)의 내용어/기능어별 레벨 분석 결과의 예

1. <u>そこで</u> <u>何</u> 을 <u>して</u> るんですか。 초/전 초/전
2. <u>あの</u> <u>人</u> は日本では有名な <u>人</u> ですよ。 초/후 초/전 초/전 초/전
4. <u>その</u> 中に <u>何</u> <u>入</u> ってんの? 중급(기능어) 초/전 중/전
5. <u>となりの</u> <u>人</u> に <u>教</u> えて <u>もら</u> ったんです。 초/전 초/전 초급(기능어)

6) SPOT(B.ver)는 여성이 녹음하고 SPOT(A.ver)는 남성이 녹음한 점으로 인해 SPOT(B.ver) 보다 SPOT(A.ver)을 어렵다고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7. 指導 教官の先生にはもう 会いましたか。 중/후 상/전 초/전 초/전 초/전
12. ほら、あの窓 の ところに いるでしょう。 중/전 초/후 초/중(기능어) 초/후

내용어 레벨은 초급전반, 초급후반, 중급전반, 중급후반, 상급전반으로 나뉘고, 기능어 레벨은 초급, 초·중급, 중급으로 나뉘어 있다. 내용어와 기능어 레벨에 있어서도 SPOT (B.ver), SPOT(A.ver)가 일치하였다.

또한 Chuta의 레벨 체커 분석에 의하면 레벨은 4.1로, N4(초·중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SPOT(A.ver)의 텍스트 문장의 평균 길이는 18.5자로 SPOT(B.ver/18.1자)와 거의 비슷하다.

<표6> SPOT(A.ver)의 Chuta 레벨 체커의 분석 결과

어휘총수	레벨4	레벨3	레벨2	레벨1	기타	조사, 조동사, 접속사
658 (100%)	229 (34.8%)	66 (10.0%)	27 (4.1%)	4 (0.6%)	19 (2.9%)	313 (47.6%)

N4 어휘는 SPOT(B.ver) 보다 SPOT(A.ver) 쪽이 적은 편이고 N3, N2, N1 해당 어휘는 SPOT(B.ver) 보다 SPOT(A.ver) 쪽이 더 많다. SPOT(A.ver) 쪽에 N1-N3 어휘가 많다는 점이 일본어 학습자에게는 어렵다고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SPOT 두 버전은 초급 후반으로 N4급에 해당된다. 다만 어휘에 있어서는 SPOT(A.ver) 쪽이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4. 일본어 문법항목의 습득현황

SPOT(B.ver)는 B대학(2년제)의 일본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1학년 2학기(2016년 9월)에 실시하였다. 총 23명으로 테스트의 평균점은 40.3점이다. 최고점은 만점인 60점이었고, 최저 점수는 3점이었다. 학습자간의 레벨 차이가 매우 큰 클래스였다. 한편 SPOT(A.ver)는 B대학에서 일본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2학년 1학기(2018년 3월)에 실시하였고 H대학(4년제)에서는 일본어 전공자를 대상으

로 1학년 2학기(2018년 9월)에 실시하였다. 총 64명⁷⁾으로 테스트의 평균점은 43.9점이다. 최고점은 64점이었고, 최저 점수는 22점이었다.

4.1. SPOT(B.ver)의 문법항목의 습득현황

SPOT(B.ver)를 실시한 결과 정답률이 80%이상인 문법항목은 14개, 정답률이 50%이상~ 80%미만인 문법항목은 38개, 50%이하는 8개로 집계되었다.

우선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정답률 50%이하의 문법항목 8개를 <표7>에 정리하였다.

<표7> SPOT(B.ver)의 정답률 50%이하의 문법항목⁸⁾

문 법 항 목	정답률
15. これは大切ですから、よく読んで(お)いてください。	7(30.4%)
2. この中に何(が)入ってるんですか。	8(34.7%)
14. あしたはどこに(も)行きたくありません。 20. お金が少し(し)かないから、旅行には行きません。 30. 先生、荷物を(お)持ちしましょうか。	10(43.5%)
32. 『経済学入門』って(て)いう本、ありますか。 42. あしたクラスを休ま(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 43. 手紙を早く出した(ほ)うがいいですよ。	11(47.8%)

「読んでおいてください」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 「~ておく」(30.4%)는 이미 학습한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가장 낮아 일본어 학습자가 많이 습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て」형에 비해 「~ておく」표현에서 정답률이 낮았다. SPOT는 듣고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듣기에서 「て」를 「と」로 잘못 들은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답률이 낮았던 학습 항목은 「何(が)」(34.7%)이다. 「何(が)」가 정답률이 낮았던 것은 예상외의 결과이다. 초급 레벨에서 비교적 빠른 단계에서 도입되어 있는 항목이고, 「何」도 「が」도 많이 노출되는 표현으로 전혀 어려운 표현이 아니다. 그리고 듣기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답률이 낮은 원인을 찾기 힘들다. 다만, 「が」대신에 「に」라고 대답한 경향이 나타났다. 뒤에 나온 「入る」의 영향으로 앞

7) B대학의 대상자는 42명(평균 46.7점), H대학의 대상자는 22명(평균41.1점)으로 총 64명이었다.

8) B대학(2년제)의 일본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다시 SPOT(B.ver)테스트 한 결과에서도 「読んで(お)いてください」(44.5%)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고, 「(し)かない」(54%), 「って(て)いう」(55.6%), 「(し)ずか(で)」(55.6%), 「何(が)」(60.3%), 「(お)持ち(し)ま(し)ょうか」(60.3%)가 여전히 정답률이 낮고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에 「に」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POT 점수가 높은 학생들에게 「に」로 쓰는 경향이 나타났다. 「に入る」를 동사+조사의 조합을 지도할 때 강조했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어 학습자가 테스트할 때 듣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대답을 적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どこにも/（し）かない/（お）持ちする」의 정답률은 43.5%이다. 「つ（て）いう/ま（せ）ていただきたい/た（ほ）うがいい」의 정답률은 47.8%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답률 50%이상~80미만의 문법항목을 <표8>에 정리하였다.

<표8> SPOT(B.ver)의 정답률 50%이상~80미만의 문법항목

문 법 항 목	정답률
5.しずか(で), 9.て(い)ます, 13.食堂(で) 21.聞い(て), 33.た(と)ころ	12(52.2%)
25.入(る)まえに, 31.食(べ)せ(さ)せる, 52.なる(だ)ろう, 16.道(を)~行く	13(56.5%)
18.見(に)行く, 44.な(り)ませんか, 54.書(け)	14(60.9%)
4.きれいな(の), 7.(を)読む, 12.どこ(か) 28.しか(ら)れる, 59.来る(か)どうか, 60.(よ)うになる	15(65.2%)
19.~にいる(か), 29.おか(え)り(に)なる, 41.(つ)もり, 47.て(は)いけません, 57.ひま(な)ので	16(65.9%)
8.て(あ)ります, 10.学生(で), 40.帰(ろ)う 48.て(く)れる, 55.する(た)めに	17(73.9%)
6.(い)ます, 17.(に)会う, 22.ん(で)す(が), 37.お茶(で)も, 38.5つ(も), 39.安(い)し, 50.降(つ)つ(ら), 53.ふ(る)そう(だ), 56.おい(そ)う(な), 58.読(め)ない	18(78.2%)

「しずか(で)9/て(い)ます/で/聞い(て)」는 초급의 이른 시기에 도입된 문법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52.2%로 낮았다. 나형용사의 て활용, 동사의 て활용, 조사 「で」를 충분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쉬운 문법항목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답률이 80%이상인 문법항목은 14개다. 「(ど)れ/~が/~(し)て/~(は)ず/~まで(に)/~て(も)」는 82.6%, 「~(く)ない/~(ま)しょう/~(が)ほしい/~(の)に/~て(も)いい」는 86.9%이고, 「~(く)なる/~て(き)ます/~(に)」는 91.3%로 나타났다.

9) 6개월 뒤의 추가 조사에서도 「しずか(で)」는 정답률이 55.6%로 그다지 점수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나형용사의 て활용이 습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표9〉 SPOT(B.ver)의 정답률 80%이상의 문법 항목

문법 항목	정답률
1. 東京行きのバスはど(れ)ですか。 11. 友だち(が)作った料理を食べました。 27. 部屋はきれいに(し)てくださいね。 34. 田中さんはもうすぐ来る(は)ずです。 35. 来週の金曜日まで(に)宿題を出してください。 51. 私は雨がふって(も)、行きます。	19(82.6%)
3. 私の部屋はあまり広(く)くないです。 23. いっしょにごはんを食べ(ま)しょう。 24. 小さいカメラ(が)ほしいんです。 45. 雨がふっているの(に)、行くんですか。 46. わからない人は質問して(も)いいですよ。	20(86.9%)
26. 新しいアパートにひっこして、部屋がひろ(く)くなりました。 36. 山田さん、おそいですね。ちょっと電話をかけて(き)ます。 49. 誕生日に、友だち(に)なにをもらいましたか。	21(91.3%)

정리해 보면 조사 「~가/~に/~も」, 1형용사의 활용 「~く」, 동사 활용 중 「~て」「~ます」도 정답률이 높았고 대부분의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명사와 1형용사의 て형 「~で」 쪽이 1형용사의 「~く」에 비해 정답률이 현저히 낮았다. 崔(2015)의 연구에 의하면 부정형에 있어서도 명사와 1형용사의 「~じゃない」보다 「~くない」의 오용이 개선되기 쉽지 않고 습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습득 순서에 유의하여 1형용사를 먼저 도입하고, 1형용사의 「~くな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4.2. SPOT(A.ver)의 문법항목의 습득현황

SPOT(A.ver)를 실시한 결과 정답률 80%이상의 문법항목은 21개, 50%이상~ 80%미만의 문법항목은 35개, 50%이하의 문법항목은 9개로 집계되었다.

우선 정답률이 50%이하인 문법항목을 정답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표10〉에 정리하였다.

〈표10〉 SPOT(A.ver)의 정답률 50%이하의 문법 항목

문법 항목	정답률
25. 何やり始める(か)と思ったら、なあんだ。	15(23.4%)

51. 早く国へ帰りたいなあなん(て)思ったりします。	17(26.6%)
50. 私に言えない(よ)うなことでもあるの?	18(28.1%)
49. それだけでは終りそう(も)ないですね。	21(32.8%)
59. だから、私は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	23(35.9%)
32. 出かけ(よ)うとしたら、電話がかかってきた。	25(40%)
57. いやだけど、どうしてもやら(ぎ)るをえないんだ。	26(40.6%)
38. これはうちの問題(で)ありまして、そちらには関係のないことです。	28(43.8%)
45. 今後それをどのように証明できる(か)最大のポイントとなります。	

「~(か)と思ったら」가 24.6%로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 「なん(て)」는 27.7%, 「~(よ)うな」는 29.2%, 「そう(も)ない」는 33.8%, 「(ふ)うに」는 36.9%, 「~(よ)うとしたら」는 40%, 「(ぎ)るをえない」는 41.5%, 「~(で)あります/どのように~(か)」는 44.6%, 「(で)も」는 49.2%로 나타났다. 문 안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か」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고,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된 경우의 「どのように~か」는 비교적 정답률이 높았다. 「なん(て)」는 「て」가 아니라 「と」를 사용하는 오용이 많았다. 일본어 학습자는 「と」를 떠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동사 관련 표현 「~(よ)う나」 「そう(も)ない」, 의지형 「~(よ)うとしたら」, 「(ぎ)るをえない」 등이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법항목을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 내에서 반영하여 지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정답률이 50%이상~80미만인 문법항목 35개를 <표11>에 정리하였다.

<표11> SPOT(A.ver)의 정답률 50%이상~80미만의 문법항목

정답률 50~60%(13개)	
15.人(で)も(50%), 56.読(め)ちゃい/(51.6%), 8.会(え)れば/9.(を)知って/63.乗って(て)(53.1%), 6.グリーン(の)スカート/28.ぐらい(に)して(54.7%), 29.(わ)け/30.(ほ)ど/58.に(し)たがって(56.2%),10.コーヒー(の)おいしい/13.(を)曲がって/43.場所(は)いい(57.8%)	
정답률 60~70%(6개)	
18.(さ)せられて/44.外国人(の)あなた/48.(か)らといって/52.いただ(け)ませんか(62.5%), 16.(が)変わったら(67.2%), 27.(に)とって(68.7%)	
정답률 70%~80%(16)	
42.行(た)って(70.3%), 19.約束(した)の(に)/40.(ん)じゃないの/46.す(べ)きだ(71.9%), 17.えら(そ)う(な)/21.(こ)とにしよう/23.(に)見える/36.(か)ぎらない/47.(よ)り/53.た(も)の(73.4%), 41.(い)く一方(だ)(75%), 12.窓(の)ところ/14.は(あ)ります/37.60(だ)し/(76.6%), 22.(ご)連絡(し)ます(78.1%)	

「好きな人(で)もいるの?」는 초급의 이른 시기에 도입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학습자가 50%밖에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の」의 「グリーン(の)スカート/コーヒー(の)おいしい/外国人(の)あなた」도 정답률이 낮았다. 일본어 학습자들에게 조사 「の」의 다양한 용법을 지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외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조사 「(を)曲がって/場所(は)いい」에 대해서도 지도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제의 「は」가 아니라 대비의 「は」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답률이 80%이상인 문법항목은 21개로 일본어 학습자가 비교적 습득하기 쉬운 항목들로 파악된다. 정답률이 80%~90%인 문법항목 12개를 <표12>에 정리하였다.

<표12> SPOT(A.ver)의 정답률 80%~90%의 문법항목

문법 항목	정답률
5. となりの人(に)教えてもらったんです。 26. 会議があったこと、すっかり忘れ(て)た。 54. 私のこと聞いたんでしょう、彼(に)	52(81.2%)
34. アルバイトって(い)えば、このあいだの話、もう決まった? 64. A:毎日ひまでひまで B:じゃ、あしたどこ(か)行かない?	54(84.3%)
11. あしたは、ちょっと大事(な)用があって行けないんです。 24. それはそう(だ)と思います。 31. これからはもつとがんばら(な)きゃ。 55. あいつ、酒飲んで寝ちゃっ(て)さ。 60. A:あとう、田中さんという方は? B:ええと、あそこに立っている人(が)田中さんです。	55(85.9%)
61. A:先週山に行ったんですよ。 B:だれ(と)いっしょに出かけたんですか。 62. A:家事やりますか。 B:せんたく(と)かはしますけど、そうじはしませんね。	57(89.1%)

「に/忘れ(て)た」는 81.2%, 「って(い)えば/どこ(か)」는 84.3%, 「大事(な)」는 85.9%, 「そう(だ)/~(な)きゃ/ちゃっ(て)/총기의 「가」」는 87.5%, 「と/(と)か」는 89.1%로 정답률이 높았다. 「どこ(か)」와 같이 의문사에 「か」가 연결된 쪽이 「동사+かと思ったら/どのように/동사+か」에 비해 현저히 정답률이 높았다.

SPOT(A.ver)에서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법항목(90%이상) 9개를 <표13>에

정리하였다.

〈표13〉 SPOT(A.ver)의 정답률 90%이상의 문법항목

문법 항목	정답률
65. A:ねえ、この話知ってる? B:うん、きのうの新聞(に)出たよ。	58(90.6%)
35. 子ども(に)なんかわかるわけないだろう。	60(93.7%)
2. あの人は日本では有名(な)人ですよ。 3. 今度、映画見(に)行かない? 4. その中(に)なにあってんの? 20. 旅行の申し込み書なんですけど、これ(で)いいですか。 33. 君の(せ)いで遅れちゃったよ。	61(95.3%)
7. 指導教官の先生(に)はもう会いましたか。	62(97%)
1. そこ(で) 何をしてるんですか。	65(100%)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で」는 일본어 학습자 모두(100%) 습득하고 있다는 결과였다. SPOT(B.ver)에서는 「で」의 정답률이 52.2%로 낮았지만, 학습기간이 1년 정도 지난 뒤의 테스트에서는 대부분 습득 가능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に」(5개)가 다수 등장하고 있고 정답률도 높은 편이다. 특히 「に」중에서 「~に会う」는 정답률이 97%로 일본어 학습자는 동사와 동반하는 조사로서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소에 쓰이는 조사 「に」도 95.3%로 높은 것으로 보아 장소 「に」와 「で」의 구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な형용사 「有名(な)/(せ)いで」도 95.3%로 높았다. 초급 레벨에서 학습한 조사 「で」, 「に」, な형용사, 동사 활용 「~て」가 정답률이 높고 대부분의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5. 나가기

본 연구에서는 SPOT를 이용하여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항목을 조사했다. SPOT(A, B.ver) 두 버전의 난이도를 검증한 결과 초급 후반으로 N4급에 해당한다는 결과였다. 리더빌리티 스코어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버전의 난

이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N4어휘에 있어서는 SPOT(A.ver) 쪽이 SPOT(B.ver) 보다 적은 편이고 N3, N2, N1에 있어서는 SPOT(A.ver) 쪽이 SPOT(B.ver) 보다 해당 어휘가 더 많게 나타났던 점이 일본어 학습자가 SPOT(A.ver)를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SPOT(B.ver)의 결과를 보면 정답률이 50%이하인 경우는 8개(13.3%)로 「読んで(お)いてください」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 다음으로는 「なに(か)/どこに(も)/(し)かない/(お)持ちする/(て)いう/ま(せ)ていただきたい/た(ほ)うがいい」가 정답률이 낮았다. 발음 상 듣기 어려운 표현과 부정 표현을 동반하는 표현, 초급 레벨에서 도입하여도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제한적인 겸양표현이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항목이었다. 특히 부정 표현과 동반하는 표현 「どこに(も)/(し)かない」는 초급 단계에 도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득하지 못한 것으로 집중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쉬운 문법항목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정답률이 80%이상인 문법항목은 14개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が/に/も」, 1형용사활용 「～く」, 동사 활용 중 「て형/ます형」이 있고, 대부분의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SPOT(A.ver)의 결과를 보면 정답률이 50%이하인 문법항목은 9개다. 「～(か)と思ったら」가 24.6%로 문 안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か」가 가장 정답률이 낮았다. 「なん(て)/～(よ)うな/そ(う)も(な)い/(ふ)うに/～(よ)うとしたら/(ぎ)るをえない/～(で)あります/どのように～(か)/(で)も」가 있다. 「なん(て)」는 일본어 학습자는 「と思う」와 혼동하여 「と」를 사용해 버리는 오용이 많았다. 또한 조동사 관련 표현 「～(よ)うな/そ(う)も(な)い」, 의지형 「～(よ)うとしたら」, 「(ぎ)るをえない」 등이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문법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법항목을 일본어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일본어 수업에서 반영하여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답률이 80%이상인 문법항목은 21개로 일본어 학습자가 비교적 습득하기 쉬운 항목들로 분류할 수 있다. 「に/忘れ(て)た/って(い)え/どこ(か)/大事(な)/そ(う)だ/～(な)きゃ/ちゃ(っ)て/총기의 「が」/と/(と)か」는 정답률이 높았다. 가장 습득하기 쉬운 정답률이 90%이상인 문법항목으로는 「で/に/有名(な)/(せ)いで」가 있다. 일본어 교육에 있어서도 SPOT를 활용한 레벨 분석과 문법 항목의 난이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안 작성 및 지도법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SPOT 두 버전의 대상자가 다르고 대상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상자 조건을 통제하고 향후 대량의 데이터를 모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적인 회화 운용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른 테스트도 추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급 레벨의 문법 항목 난이도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다른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레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崔真姬(2015) 「「ない形」における誤用パターンに関する一考察—名詞文と形容詞文を対象に—」 『日語日文学』68輯、大韓日語日文学会、pp.55-68. (DOI: <http://dx.doi.org/10.18631/jalali.2015.68.004>)
- 小林典子・フォード丹羽順子(1992) 「文法項目の音声聴取に関する実証的研究」 『日本語教育』78号、日本語教育学会、pp.167-177.
- 小林典子(2005) 「言語テストSPOTについて—用紙形式からWEB形式へ—」 『日本語教育論集』20号、筑波大学留学センター、pp.67-79.
- 迫田久美子(1998) 「誤用を産み出す学習者のストラテジー—場所を表す格助詞「に」と「で」の使い分け—」 『平成10年度日本語教育学会秋季大会 予稿集』日本語教育学会、pp.128-134.
- 野田尚史・迫田久美子・渋谷勝己・小林典子(2001) 「第6章文法項目の難易度」 『日本語学習者の文法習得』大修館書店、pp.101-120.
- 楊元・酒井たか子・小林典子(2012) 「言語テスト「SPOT」の難易度に影響を与える要因—選択肢の効果について—」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dvanced Japanese Studies 国際日本研究*』4、筑波大学社会科学人文学研究科、pp.1-16. (DOI: <http://dx.doi.org/10.15068/00129438>)

논문 투고 일자 : 2020. 09. 29.
논문 심사 일자 : 2020. 10. 26.
게재 확정 일자 : 2020. 10. 28.

 <要旨>

 初級における習得困難な文法項目
 –SPOTテストを用いて–

崔真姬

本稿では初級レベルの日本の学習者を対象に SPOTを用いて習得困難な項目を調べた。SPOT(B.ver)からは正解率が50%以下のものは8項目であった。具体的には「読んで(お)いてください」(13.3%)が最も低かった。次いで、「なに(が)/どこに(も)/(し)かない/(お)持ちする/(て)いう/ま(せ)ていただきたい/た(ほ)うがいい」があった。発音上聞き取りにくい表現や否定表現を伴う表現、謙譲語などであった。特に、「どこに(も)/(し)かない」は初級レベルの早い時期に導入されているながら、習得していないため、集中的に指導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られる。

SPOT(A.ver)からは正解率が50%以下のものは9項目であった。具体的には「～(か)と思ったら」(24.6%)が最も正解率が低かった。「なん(て)/～(よ)うな/そう(も)ない/(ふ)うに/～(よ)うとしたら/(ぎ)るをえない/～(で)あります/どのように～(か)/でも」があった。文の中で不確かさを表す「～か」が最も習得されていない。「なんて」は日本語学習者に「と思う」と混同してしまう誤用が目立っている。また、助動詞関連の「～ような/そうもない/～ようとしたら」は日本語学習者が習得困難な項目として扱うことができる。このような項目に焦点を当てて、日本語指導の際、工夫する必要がある。今後、SPOTの結果を基に初級レベルにおいて習得困難な文法項目を把握し、指導法に工夫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A Category of Grammar that is Hard to Acquire
 –Based on SPOT Research–

Choi, Jin-Hui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 category of grammar that is hard to acquire using the SPOT(Simple Performance-Oriented Test) for Japanese learners at the beginning level. The SPOT(B.ver), showed that in eight cases, less than 50% of the answers were correct. These expressions are difficult to listen to in pronunciation, idiomatic expression, accompanied by negative expression and humility grammar item, which is hard to acquire. In particular, “dokonimo” was introduced at the beginning level but it was not learned well by beginners. Therefore, it is critical to include this part in the instruction.

When we checked the result of the SPOT(A.ver), the correct answers in nine cases were below 50%. “Katoomottara” (24.6%) was the lowest case, followed by “nante,” “youna,” “soumonai,” “huni,” and “youtositara.” Among the questions, “~ka,” which indicates uncertainty in a sentence, had the lowest rate. Many Japanese learners use “nante” instead of “toomou” due to confusion. In addition, auxiliary verb-related expressions such as “youna,” “soumonai,” and “youtositara” can be classified as items that are difficult to learn. Instruction should be given to students so that they can learn these items specifically. From now on, I hope that we can reflect on this result to improve the instruction for Japanese learners.